12-15-2024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 말씀: 로마서 6:1-11
말씀 제목: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다가 환란 전에 휴거되는 축복**

하나님께서는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하셨습니다. 에녹은 65 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임할 홍수 심판 전에 그를 옮기셨습니다(창 5:22-24).

사도 바울은 에녹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히 11:5)

그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며,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또한 사람 뿐만 아니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까지 멸망시키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창 6:5-7).

그러나 당시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던 단 한 사람 노아를 택하시고 심판 전에 그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에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그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0 년 후에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 홍수 전에 그와 그의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명하신 생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창 6:9-22)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두 천사들과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창 18:1-22).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를 소돔으로 보내셔서 당시 단 한 사람 의인인 롯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아브람은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동성애로 가득찬 상태였습니다. 두 천사가 롯을 만나 그의 집에 유하면서 롯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너 외에 누가 더 있느냐? 사위와 네 아들들과 누구든지 이 성읍에서 네게 속한 자는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그들의 부르짖음이 주의 면전에서 매우 크므로, 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아침이 밝아오니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네 아내와 여기에 있는 네 두 딸을 데리고 가라. 그래야 네가 성읍의 죄악 속에서 소멸되지 않게 되리라.'(창 19:12-13,15)

사도 베드로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전에 의인 롯을 구원하신 일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재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니라.) 주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 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시느니라."(벧후 2:6-9)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이 이르기 전 마지막 7 년 대환란 동안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지난 이천 년 동안 태어나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아 하늘로 데려갈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피난처를 마련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앞으로

나타날 대 환란 전에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리고 롯처럼 구원받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입으로 아주 간단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요 3:14-18)

신약 시대의 구원의 방주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 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롬 6:3-11)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그분 안으로 침례 받아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에녹이 300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늘로 옮겨진 것처럼, 또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가 내리기 전에 모두 방주 안으로 들어간것 처럼, 뿐만 아니라, 의인 롯을 불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두 천사를 보내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몸 안으로 들어가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대 환란 직전에 하늘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살았던 옛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박혀 죽었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늘로 데려가실 날만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휴거의 때와 시기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증거했습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 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살후 2:3-4)

사도 바울은 영원하신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롬 14:17)
아멘! 할렐루야!